

# '하수찌꺼기 감량화' 일석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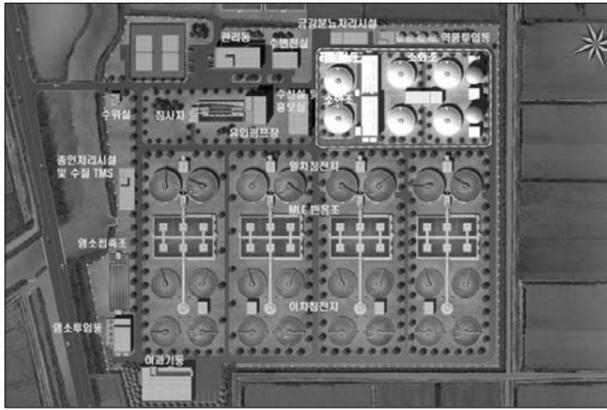
### 익산시, 연간 12억원 예산 절감·악취개선... 268억원 들여 내년 완공 목표

익산시가 공공하수처리장에 추진 중인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예산 절감은 물론 악취 개선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적극 설득해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며 추진한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시는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친환경 하수처리장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국비 188억원과 도비 40억원 등 총 사업비 268억원을 투입해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32% 가량으로 오는 2022년 하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는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25년이 경과된 금강동 하수처리장의 노후된 탈수기등을 철거한 후 종합처리등을 신설해 악취를 전량 포집해 탈취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가스저장조 1기와 탈황설비를 교체해 주요 악취발생 물질인 황화수소 농도를 2천ppm에서 20ppm 이하로 저감시켜 악취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1일 68톤에서 57톤으로 11톤이 감소해 연간 5억원 정도의 위탁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감량화 과정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전량 판매해 연간 7억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해마다 총 1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각종 시설 개선으로 악취를 방지해 인근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 방식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공사를 중단해 지방교부세 112억원 삭감 위기에 처했으나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페널티를 받지 않고 사업 방식을 변경하며 신규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당부

### 타지역 방문한 2명 확진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22일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 2명

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부부인 익산 199번(전북 1,130번), 200번(전북 1,131번) 확진자는 평택의 자녀집에 방문한 뒤 해당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 받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확진자 자택과 방문지 등 이동 동선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추가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긴장감을 유지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개선

### 심야는 과태료 미부과, 신고 가능 시간대는 1인 2대 이내로 제한

군산시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심야 시간대 주민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 가능 시간대에도 1인 2대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제한이 없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 수 2만 4,850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으로 18.3%에 해당하며 과태료는 1억6,000만원에 이른다.

이중 절반 이상이 사고위험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행정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사람이 심야에 10~15건씩 신고 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개인의 유희거리로 전락될 우려도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 비대면 수업 선진화 교육시스템 활용

### 군산대학교, 온라인 수업 혁신 가이드북 v1.0° 발간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가 수업혁신의 일환으로 학생과 교수에게 비대면 수업의 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2021 온라인 수업 혁신 가이드북 v1.0'을 발간했다.

군산대는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환경에서도 온라인 수업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를 중심으로 수업혁신자문단을 구성해, 온라인 교육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 혁신 가이드북 v0.8을 제작하여 2학기에 학생과 교수가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과 교수 노하우, 선진화된 교육시스템 등을 고루 반영해 더욱 발전된 형태의 v1.0을 제작했고,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수업혁신에 활용할 예정이다.

수업혁신가이드북 v1.0의 주요 내용은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수 가이드 및 학생 가이드 ▲학생·학생·교수의 학습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소통 가이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수와 학생의 온라인수업 체크리스트 ▲온라인 수업 혁신 방향 제언 ▲온라인 수업에 집중시키고 학습성과를 높이는 사례 및 노하우 ▲군산대학교 이러닝시스템(eClass)과 Webex 사용법 ▲eClass와 연동한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업혁신 가이드북은 동영상 및 리플릿, 파일 형태로 학생들에게 배포해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수업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1 수업혁신가이드북 v1.0은 군산대학교의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됐다. 학생에게는 온라인 수업을 잘 수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교수에게는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산대는 갑작스럽게 다가온 코로나19 교육환경에서도 온라인 수업 경험이 풍부한 교수를 중심으로 수업혁신자문단을 구성했고, 학생 및 교수가 온라인 교육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 혁신 가이드북 v0.8을 제작해 2학기부터 활용 계획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 익산 노인돌봄전문이용소방대 운영

### 전문강사 자격 38명 동원 안전관리 교육 등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확보를 위해 전문강사 자격이 있는 의용소방대가 동원되어 '노인돌봄전문이용소방대'를 본격 운영한다.

'노인돌봄전문이용소방대'는 차가운 기온으로 외출이 어렵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한 독거노인의 말벗이 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활동 자제와 사회적 고립과 소외,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악화로 생명이 크게 위협받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건강·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소방서는 이달 22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생환안전강사 등 노인돌봄전문이용소방대 38명이 동원돼 거주 또는 인접마을 독거노인 118명을 대상으로 매달 1회 이상 ▲전기·가스 사용 교육 ▲식품, 생활·의약품 및 가정용 화학

물질 안전관리 교육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기도폐쇄, 외상 등) 교육 ▲노인 정신건강(노년기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 상담 ▲사회소득 등 전달 및 말벗 되어주기 ▲의부인 접촉 시 코로나19 방지 비말 차단 마스크 착용 지도 및 배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손 자주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지도 ▲화재, 구급 등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119에 신고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 등으로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마을 이·통장과 협의를 통해 독거노인 주택 난방기구 확인 및 보일러 점검, 독거노인 거주 마을 및 마을 경로당 등 공동생활장소 방역지원, 주택 환경정리 등 어르신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탠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작은 관심과 배려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며 "어르신들에게 안전과 희망을 전달해 안전한 생활이 되기를 바래본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 어린이안전체험관 지난 22일부터 운영 재개

군산시는 어린이교통공원 내 어린이안전체험관을 22일부터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시간은 평일 3회(10:00, 11:30, 14:00), 토요일 2회(11:00, 14:00)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1회 최대 이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명으로 제한해 운영된다. 이용객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군산시어린이교통공원 홈페이지(www.gstp.or.kr)에서 사전예약 접수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군산시는 오는 26일까지 읍·면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건축예정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해 심사를 거쳐 총 4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넓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요구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 추진되는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이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축과 같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은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후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하는 조건이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80㎡ 이내 토지를 주택부지 용도로 구입하면 대출한도 범위 내 7천만원까지, 선금(중도금 포함)은 최대 4천만원까지(개량은 2천만원)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가능하다.

다만, 신축주택과 부속건축물의 합산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고, 취득세가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되며,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드립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